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강영숙
부산여자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of nursing college female students

Young Suk Kang

Department of Nursing, Busan Wome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간호학과 여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였고, 최종 270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3.21 ± 0.38 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F=5.13, p=.006$), 부와의 관계($F=4.74, p=.001$), 성적($F=5.22, p=.006$), 성만족($F=4.0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 상관계수에서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r=.30, p<.001$), 긍정적 정서표현($r=.37, p<.001$), 성정체성($r=.26,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 폐쇄적 의사소통($r=-.22, p<.001$), 부정적 정서표현($r=-.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과 성정체성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자기효능감의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270 female nursing students in B city, from May 23, 2016 to May 27 and then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degree of self-efficacy among female nursing students was 3.21 ± 0.38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fficacy with respect to academic status($F=5.13, p=.006$), relationship with father($F=4.74, p=.001$), academic grade($F=5.22, p=.006$), and gender satisfaction ($F=4.00, p=.004$).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open communication($r=.30, p<.001$), self-efficacy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r=.37, p<.001$), and self-efficacy and gender identity($r=.26, p<.001$), while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close communication($r=-.22, p<.001$), and self-efficacy and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r=-.26, p<.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18.2% variance in female nursing student's self-efficacy in response to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identit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various factors affecting and increasing self-efficacy of fe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Keywords : Communication,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Nursing female student, Self-efficacy

이 연구는 2017년도 부산여자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17교-33)

*Corresponding Author : Young Suk Kang(Busan Woman College)

Tel: +82-10-9889-5964 email: kys3010@bwc.ca.kr

Received May 10, 2017

Revised (1st June 13, 2017, 2nd July 6,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이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행동의 기준이 결정된다[1]. 어떤 인간이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주로 자기효능감이 언급되고 있으며, 자녀는 부모를 통해 가정 내에서 먼저 자기효능감을 경험, 형성, 발달시키게 되고[2], 부모를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은 자녀가 성장한 후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자신감과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3]. 대학생 시기의 자기효능감은 새로운 환경과 적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하고 성인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서 개인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4].

자기효능감 향상 관련 요인들은 대부분 의사소통과정에서 이루어진다[3,5-7].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친근하고 수용적이며 책임감 있는 합리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하는 경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8]. 청소년의 삶에 있어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9]. 성역할의 변화와 자녀양육에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들이 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10].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으로 아버지의 질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대학생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에 주목하여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학생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7]. 선행연구에서 Yoon, Oh[11]는 아버지의 의사소통 유형이 기능적일수록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높고 특히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Kim, Hong, Yoon[12]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13]의 연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남녀집단 모두에서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모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자아분화에 영향을 미쳤고, 고등학생, 대학생 남녀집단 모두에

서 부와의 폐쇄적 의사소통이 불안과 우울에 가장 큰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및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은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행동 즉, 몸짓, 얼굴표정 등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데, 정서표현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모델링을 통해 학습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형성하여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의 정서표현은 자녀가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학습하고 적절한 표현양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정서표현 특성과 그 내적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14]. 선행연구에서 부-자녀 간의 상호작용에서 부가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서로 존중하는 경험을 한 자녀는 높은 사회적 능력을 보인 결과와[15], 부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 부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가 있었으나[16] 부의 정서표현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가 준비되어 가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근본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의 바람직한 성의식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7]. 성정체성에 대한 부모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 및 태도에서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17]. 특히 부와의 의사소통은 딸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더라도 아버지는 일반적인 도덕 및 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18],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이성적 관계에 대한 남성의 관점을 알려줄 수 있다[19].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성과 관련된 가치관, 행동, 정체감 등은 가족체계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족은 청소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그에 적절한 청소년의 의식,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의 한 부분으로 그들의 자아정체감 중에 성정체감의 근간이 된다는 결과

[20]는 성정체감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성정체감과의 관계, 성정체감이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6,17,21-23] 부와의 의사소통이나 정서표현과 자기효능감이 관련된 연구는 부족하다. 또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에 남학생과는 다르게 지각하는 여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이 자기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연구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간호여대생은 직접적인 신체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간호 및 영적 간호를 책임지고 있고 그 대상도 개인에서 가족 및 지역사회로 확대된 간호사의 역할에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어 간호여대생은 자기효능감 향상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24].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이 지각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한 4년제 학제로 운영되는 3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 1, 2학년 간호여대생에게 연구 보조 요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강의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설문을 하는 동안 연구 보조 요원은 강의실 밖에서 대기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시간은 평균 20~2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에게는 설문지를 회수하면서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으로 대상자수는 245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6년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300부를 배부하여 278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7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가족 내에서 부와의 의사소통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 반응적인 과정[25]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도구는 Barns와 Olson[26]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PACI)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수정한 Min, Lee, Lee[22]의 척도로 부모-자녀 의사소통 척도는 총 40개 문항으로 자녀

가 지각한 부와 자녀 간, 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 20개 문항과 폐쇄적 의사소통 20개문항의 2개의 하위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상호간의 감정표현과 정보교환이 솔직하고 자유로우며, 의사소통을 통한 이해와 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선택적인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대한 두려움 및 경계심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를 이용하여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개방적이며 폐쇄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의 의사소통 20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Min, Lee, Lee[22]의 연구에서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Cronbach's $\alpha=.93$ 이고, 본 연구에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87$, 폐쇄적 의사소통은 Cronbach's $\alpha=.71$ 로 나타났다.

2.3.2 부의 정서표현

부의 정서표현은 가정에서 아버지가 경험하는 정서를 밖으로 표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언어적이고, 언어적인 표현을 지속적인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다 [27]. 본 도구는 Harberstad et al[27]가 제작한 가정에서의 자기표현 질문지(Self-Expressiveness in the Family Questionnaire)를 Song, Ohm[16]이 대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정서적 표현 경향을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형태의 도구이며, 전체 40문항으로 긍정적 정서표현을 측정하는 23문항과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자주하는 것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긍정적 영역은 0~115점, 부정적 영역은 0~85점까지이다. Song, Ohm[16]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Cronbach's $\alpha=.91$, 부정적 영역 Cronbach's $\alpha=.8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긍정적 정서표현 Cronbach's $\alpha=.91$, 부정적 영역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3.3 성정체성

성정체성은 사회에서 성별에 대한 고정 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 개인이 자신을 얼마만큼 남성성 혹은 여성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하는가를 말

한다[28]. 본 연구에서는 Hong, Kim, Han[29]이 개발한 5개 문항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이 속한 남녀 성 집단에 속해 있음으로써 얻는 가치감, 호감, 자긍심, 소속감을 측정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ong, Kim, Han[2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70$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2.3.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30]. 본 연구에서는 Kim, Cha[1]이 제작한 것을 Kim[30]이 일부 수정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4문항,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모두 선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0세 미만이 162명(60.0%)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형태는 집이 185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상태는 ‘중’이 224명(8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한 달 용돈은 ‘30-39만원’이 85명(31.5%)로 가장 많았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217명(80.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와의 관계는 ‘친밀하다’가 101명(37.4%), 모와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가 147명(54.4%)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성적은 ‘중’이 140명(74.1%)으로 가장 많았고, 성만족도는 ‘매우 만족’ 103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0	162	60.0
	20-22	87	32.2
	23-25	21	7.8
Residential type	Home	185	68.5
	A boarding house	72	26.7
	Others	13	4.8
Economic status	High	10	3.7
	Middle	224	83.0
	Low	36	13.3
Pocket money (10,000/month)	<10	32	11.9
	10-19	38	14.1
	20-29	80	29.6
	30-39	85	31.5
	≥40	35	13.0
Forms of family	Extended	25	9.3
	Nuclear	217	80.4
	Single parent	28	10.4
Relation of father	Very intimate	60	22.2
	Intimate	101	37.4
	Moderate	68	25.2
	Not intimate	29	10.7
	Very not intimate	12	4.4
Relation of mother	Very intimate	147	54.4
	Intimate	89	33.0
	Moderate	29	10.7
	Not intimate	3	1.1
	Very not intimate	2	0.7
Academic grade	High	22	11.6
	Middle	140	74.1
	Low	27	14.3
Satisfaction of gender	Very good	103	38.1
	Good	97	35.9
	Moderate	59	21.9
	Not good	14	4.1

3.2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egree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Self-efficacy (N=270)

Variable	M±SD	Range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Open communication	34.30±7.54
	Close communication	26.86±6.33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79.77±13.25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43.29±10.40
Gender identity	3.74±0.62	1-5
Self-efficacy	3.21±0.38	1-5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34.30±7.54점, 폐쇄적 의사소통은 26.86±6.33점, 부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은 79.77±13.25점, 부정적 정서표현은 43.29±10.40점, 성정체성 3.74±0.62점, 자기효능감은 3.21±0.39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자기효능감은 경제상태($t=5.134, p=.006$), 부와의 관계($F=4.735, p=.001$), 성적($F=5.222, p=.006$), 성만족($F=5.3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나머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후검정에서 경제상태가 ‘상’이 ‘중’ 이하 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친밀하다’, ‘친밀하다’가 ‘친밀하지 않다’ 보다 높았다. 성적에서는 ‘중’이상이 ‘하’ 보다 높았고, 성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보통’ 보다 높았다.

Table 3. Difference of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0)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M±SD	t/F(p) Scheffe's
Age	<20	3.21± 0.38	1.698 (.168)
	20-22	3.21± 0.39	
	23-25	3.07± 0.35	
Residential type	Home	3.21± 0.39	.312 (.817)
	A boarding house	3.23± 0.37	
	Others	3.11± 0.54	
Economic status	High ^a	3.57± 0.35	5.134 (.006)
	Middle ^b	3.21± 0.37	
	Low ^c	3.14± 0.44	

Characteristics	Categories	Self-efficacy	
		M±SD	t/F(p) Scheffe's
Pocket money (10,000/month)	<10	3.34±0.48	1.796 (.130)
	10-19	3.15± 0.32	
	20-29	3.19± 0.36	
	30-39	3.18± 0.38	
	≥40	3.30± 0.40	
Forms of family	Extended	3.19± 0.34	.461 (.631)
	Nuclear	3.22± 0.37	
	Single parent	3.15± 0.54	
Relation of father	Very intimate ^a	3.28± 0.40	4.735 (.001) a, b>d
	Intimate ^b	3.28± 0.35	
	Moderate ^c	3.19± 0.33	
	Not intimate ^d	3.03± 0.38	
	Very not intimate ^e	2.92± 0.44	
Relation of mother	Very intimate	3.25± 0.40	1.994 (.096)
	Intimate	3.16± 0.39	
	Moderate	3.14± 0.25	
	Not intimate	3.51± 0.35	
	Very not intimate	3.54± 0.18	
Academic grade	High ^a	3.25± 0.37	5.222 (.006) a, b>c
	Middle ^b	3.24± 0.39	
	Low ^c	3.04± 0.34	
Satisfaction of gender	Very good ^d	3.30± 0.41	5.351 (.001) a>c
	Good ^b	3.21± 0.37	
	Moderate ^c	3.06± 0.34	
	Not good ^d	3.23± 0.29	

3.4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 과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r=.30, p<.001$), 긍정적 정서표현($r=.37, p<.001$), 성정체성($r=.26,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폐쇄적 의사소통($r=-.22, p<.001$), 부정적 의사소통($r=-.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개방적 의사소통은 긍정적 정서표현($r=.60, p<.001$), 성정체감($r=.20,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폐쇄적 의사소통($r=-.45, p<.001$), 부정적 정서표현($r=-.26, p<.001$)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폐쇄적 의사소통은 부정적 정서표현($r=.53,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긍정적 정서표현($r=.33, p<.001$), 성정체성($r=-.16, p=.007$)과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긍정적 정서표현은 성정체성($r=.22,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정서표현($r=-.28, p<.001$)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5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615-.94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1.76으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956,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82로 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Self-efficacy (N=270)

Variable	Open communication r(p)	Close communication r(p)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r(p)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r(p)	Gender identity
Close communication	-.45 (.001)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60 (.001)	-.33 (.001)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26 (.001)	.53 (.001)	-.28 (.001)		
Gender identity	.20 (.001)	-.16 (.007)	.22 (.001)	-.11 (.082)	
Self-efficacy	.30 (.001)	-.22 (.001)	.37 (.001)	-.26 (.001)	.26 (.001)

Table 5. Influence effects of Perceived Father Communication, Father Emotional Expressiveness, Gender Identity on Self-efficacy (N=270)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39	.244		9.583	<.001
Posi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007	.002	.240	3.419	.001
Negative emotional expressiveness	-.006	.002	-.155	-2.360	.019
Gender identity	.109	.035	.175	3.079	.002
Open communication	.004	.004	.084	1.147	.252
Close communication	.000	.004	.007	.102	.919

Adj R²=.182, F=12.956(p<.001)

명력은 18.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정서표현(t=3.419, p=.001), 부정적 정서표현(t=-2.360, p=.019), 성정체성(t=3.079, p=.002)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과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와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과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개방적 의사소통은 34.30±7.54점, 폐쇄적 의사소통은 26.86±6.33점, 부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은 79.77±13.25점, 부정적 정서표현은 43.29±10.40점으로 나타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대생의 경우 부와의 의사소통에서 긍정적 의사소통 33.59점, 폐쇄적 의사소통 28.05점, 부의 정서표현에서 긍정적 정서표현 80.10점, 부정적 정서표현 44.76점으로 나타난 결과[31]와 차이를 보였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과 부의 정서표현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한 비교와 남녀 대학생의 비교는 연구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성정체성 3.74±0.62점으로 나타나 같은 도구가 아니라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2점(7점)으로 나타나 결과[32]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같은 도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비교에는 한계는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의 여성성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성정체감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성정체감에 대한 비교와 성정체감 향상을 통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3.21±0.38점으로 나타나 Choi[31]의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3.17(76.11)점으로 나타난 결과 보다는 높았고, Kim et al[33]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6점 척도에 3.65점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측정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은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간호여대생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여대생은 다른 전공학과에 비해 학습과제가 많고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학문적 가치[5]와 다양한 대상자를 대해야 할 간호사로서 준비가 필요함으로 이를 위한 자기효능감 증진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일으키어 임상수행능력과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34]를 통해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경제상태, 부와의 관계, 성적, 성만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학과성적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5]와 유사하고 가족형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6]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 인내, 사고패턴, 자성, 궁극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37]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중재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의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

어졌으나 같은 도구, 같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를 통한 특성을 확인하고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효능감은 개방적 의사소통과 정적 상관관계, 폐쇄적 의사소통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부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폐쇄적 의사소통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12]와 차이를 보이고, 부모 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일수록 자아분화 수준과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과[21]와는 유사하였다. 또한 부의 폐쇄적 의사소통은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13]와 유사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긍정적 정서표현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정적 정서표현과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의 부정적 정서표현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낮아져 친사회적 행동이 줄어들고 내적, 외적 행동에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16]는 대학생이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유아시기부터 부정적 정서표현을 통해 성장한 학생들은 사회적 관계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린 시절 형성된 사회학습의 결과는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며[2] 부정적으로 학습된 정서표현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정서표현이 나타나 친화적인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기효능감은 성정체성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기에 표출되는 성과 관련된 가치관, 행동, 정체감 등은 가족체계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가족은 청소년이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성적 존재감을 확립하고, 그에 적절한 청소년의 의식, 행동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시기에 형성된 성정체감은 그들의 자아정체감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결과[20]가 본 연구를 뒷받침한다.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성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Lee, Park, Rah[38]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자녀는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고 자기효능감, 등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이를 통해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부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 성정체성과 관련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기 시절부터 모의

역할 뿐만 아니라 부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결과를 통해 여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부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와의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 Hong, Yoon[12]의 연구에서 부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결과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자녀간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31] 등은 일관되지 않아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반복연구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간호여대생의 부와의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반복연구와 부와의 의사소통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특히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없고 같은 변수를 통한 연구결과가 부족하여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수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비교와 함께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부와의 의사소통과 정서표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습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통한 훈련이 필요하고[21],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성태도 및 성행동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시킬 수 있다는 것[17]을 감안하여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비합리적 신념의 향상을 가져온 인지정서행동 집단프로그램[39]과 같이 부와 자녀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3개 대학교의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여대생의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여대생의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의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과 성정체성을 확인하였고,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여대생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여대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와의 의사소통, 부의 정서표현, 성정체성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가족 내의 부와의 의사소통, 정서표현, 성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향상시켜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A. Y. Kim, J. E. Cha, "Self-efficacy and measurement", *Proceeding of Winter Conference of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pp. 51-64, 1996.
- [2]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N. S. : Prentice-Hall, 1986.
- [3] H. J. Mo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child-learning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37, no. 9, pp. 141-152, 1999.
- [4] I. S. Jang, S. J. Cha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mother's rearing attitude and peer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6, pp. 291-313, 2012.
- [5] Y. S. Eo, K. R. Lee, S. S. Choi, "Ego-identity, self-efficacy and the independence of his parents with college and adjustment in freshman of nursing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3, no. 6, pp. 3073-3084, 2011.
- [6] S. H. Jang, S. H. Lee,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7, no. 4, pp. 395-406, 2011.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1.17.4.395>
- [7] J. Y. Chae, "The influence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31, no. 1, pp. 39-48, 2013.
DOI: <https://doi.org/10.7466/JKHMA.2013.31.1.039>
- [8] H. S. Shin, Y. O. Jang,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on adolescent's self-efficac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9, no. 5, pp. 189-202, 2001.
- [9] C. Y. Nam, S. M. Kim, "The effects of fathering practice on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3, no. 2, pp. 315-334, 2011.
- [10] J. H. Park, J. Y. Hwang, C. E. Chung, Y. E. Lee, M. S. Yoo,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perception of father and happiness according to father's control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4, pp. 1247-1260,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4.201108.1247>
- [11] M. A. Yoon, Y. J. Oh, "Study on parent-adolescent child communication types and self-efficac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 14, no. 1, pp. 115-129, 2004.
- [12] H. S. Kim, S. H. Hong, E. J. Yo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i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6, no. 2, pp. 37-65, 2005.
- [13] I. J. Choi,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elf-differentiation,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no. 3, pp. 611-628, 2007.
DOI: <https://doi.org/10.15842/kjcp.2007.26.3.004>
- [14] J. C. Dunsmore, A. G. Halberstadt,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vol. 77, pp. 45-68, 1997.
DOI: <https://doi.org/10.1002/cd.23219977704>
- [15] E. W. Lindsey, T. Smith, K. Benedict, "Father-child pla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1995.
- [16] H. Y. Song, J. A. Oh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verbal control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5, no. 4, pp. 87-96, 2007.
- [17] S. Y. Kim, "The relationship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and sexual consciousness by adolescent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vol. 28, pp. 63-82, 2010.
- [18] M. K. Hutchinson, T. M. Cooney, "Patterns of parent-teen sexual risk communic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Family Relation*, vol. 47, no. 2, pp. 185-194, 1998.
DOI: <https://doi.org/10.2307/585623>
- [19] M. K. Hutchinson, "The influence of sexual risk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daughters on sexual behaviors", *Family Relation*, vol. 51, no. 3, pp. 238-547, 2002.
DOI: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2.00238.x>
- [20] B. S. Hong, "A study on british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strategies for youth in prostitution", *Korean Association of Criminology*, vol. 19, no. 1, pp. 387-424, 2007.

- [21] M. K. Jeon, M.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elf differentiation, self esteem,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4, pp. 293-302, 2013.
- [22] H. Y. Min, Y. J. Lee, Y. M. Lee, "College stud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5, pp. 17-27, 2004.
- [23] J. H. Park, T. H. Kim, "A study on sexual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focus on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and university students' sexual attitude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0, no. 1, pp. 75-101, 2005.
- [24] E. J. Yeun, H. J. Kwon, H. J. Kim, "Subjectiv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2, no. 3, pp. 342-350, 2012. DOI: <https://doi.org/10.4040/jkan.2012.42.3.342>
- [25] E. M. Park, "Relationship of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between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types and students'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University, Seoul, 1998.
- [26] H. L. Barnes, D. H. Ols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vol. 56, pp. 438-447, 1982. DOI: <https://doi.org/10.2307/1129732>
- [27] A. G. Harberstadt, J. Cassidy, C. A. Stifter, R. D. Parker, N. A. Fox,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7, no. 1, pp. 93-103, 1995. DOI: <https://doi.org/10.1037/1040-3590.7.1.93>
- [28] D. J. Lee, E. J. Lee, "The influences of gender role identity, and gender role attitud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4, pp. 2137-2151, 2009. DOI: <https://doi.org/10.15703/kjc.10.4.200912.2137>
- [29] K. W. Hong, M. S. Kim, Y. S. Han,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satisfaction with one's gender group and collective self-esteem on gender egalitarianism",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8, no. 1, pp. 19-33, 2003.
- [30] A. Y. Kim, "A study on the academic failure-tolerance and its correlat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1, no. 2, pp. 1-19, 1997.
- [31] K. A. Choi, "The effect of father-adolescents communication, fa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on self-efficac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 [32] Y. J. Park, "A study on college students' gender-role identity & its relationship to sex stereotype and self-conscious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kang University, Seoul, 2000.
- [33] H. Y. Kim, S. Y. Kim, H. W. Seo, E. H. So, "Time management behavior and self-efficacy in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7, no. 3, pp. 293-300, 2011.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1.17.3.293>
- [34] S. M. Kim, S. Y. Park, "The effects of attribution disposition, self-efficacy and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of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6, pp. 3409-3421, 2014.
- [35] S. H. Park, E. K. Byun,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2, pp. 8284-8291,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12.8284>
- [36] E. H. Hwang, C. M., Hong, S. J. Shin,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6, pp. 3409-3421, 2016..
- [37] A. Y. Kim, I.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39, no. 1, pp. 95-123, 2001.
- [38] Y. Lee, K. J. Park, Y. M. Ra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scores for the attachment Q-test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8, no. 2, pp. 131-148, 1997.
- [39] M. A. Kim, J. Kim, E. J. Kim, "Relationships among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in college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6, no. 2, pp. 1103-1114, 2014.

강 영 속(Young Suk Kang)

[정회원]



- 2005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부산여자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관심분야>

건강증진행위, 발반사마사지, 만성질환 간호